

함께 어우러질 마당이 필요하다

작가 에세이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호남대 외래교수



마당을 쓴다. 비가 오는 날이 아니고서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다. 대빛 자루 끝이 흙을 파고들어 그림 아닌 그림이 그려질 만큼 은 힘을 다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당을 쓴다기보다는 미세하게나마 흙을 뒤엎어 윤기 나게 가꾼다고 나 할까.

생전의 할아버지께서도 습관처럼 마당을 쓸곤 하셨다. 그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마당에서 뛰어 놀 때가 좋았다.

땅따먹기나 공기놀이를 할 때마다 손에 닿던 그 보드라운 흙의 감촉이란... 집주인이 되어 십여 년이 넘는 동안 말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흙 마당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뒷밭을 떼어 내고, 다실(茶室)로 사용할 별채 자리도 제법 잘라냈다.

거기다 남편은 유실수를 심으려고 호시탐탐 내 땅을 노리고 있다. 심지어는 오다가다 들른 동네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니 잔디를 심으라고 틈만 나면 종용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사연들이 있기는 했으나 곳곳하게 흙 마당을 꾸러 가고 있다. 달과 별이 뜬 밤, 반들반들 닦아진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이라도 피우노라면 하늘도 땅도 인간도 하나 되어 어우러진다. 마당에만 서면 이상하게도 할머니 치맛자락 움켜쥐고 종종거리던 추억의 5일 장이 떠오르곤 한다.

먹거리, 볼거리, 재밌거리 등 없는 것이 없이 넘쳐나던 그곳은 그야말로 온종일 휘청휘청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5일 장에 갈 때마다 시장에 간다가 아니라 마당을 뜻하는 '장(場) 보러 간다', '장(場)에 간다'라고 했다. 장(場)은 이미 시장을 뜻하는 고유어가 되어있지만, 5일 장은 단순히 물건만을 사고파는 마트와는 그 의미가 달랐다. 근동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물녘까지 한마당 어우러

우리의 정서 안에는 한마당 질편하게 어우러터우렁 하고 싶은 심사가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다. 무대라는 공간이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공연자 것이라면, 마당은 흥이 나면 언제든 뛰어 들어 함께할 수 있는 관람자 것이라고나 할까... 온 동네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며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던 그 옛날의 열린 마당이 새삼스럽다.

지는 축제의 장(場)이었다고나 할까.

농사에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의 마당이란 요즘 푸른 잔디가 깔린 서양식 정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양식 정원이 시각으로 즐기는 공간이라면 우리의 마당은 몸을 담고 활동하는 생활의 공간이었다.

추수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타작을 하는 일터이며, 명석을 깔고 곡식과 채소를 널면 독특한 풍경의 건조장이 되었다. 평생 하나를 톡 놓으면 가족의 섭터요,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은 명절 때마다 펼쳐지던 마당놀이이다.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도, 한가위 달빛 아래서 보름달보다 더

환한 얼굴로 고모, 언니들이 펼치는 강강술래도, 온 마당을 웃음바다로 만들던 아래 뜰 당숙모의 '짹추 춤'도 모두 동네 어느 집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마당굿 놀이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자면 국가적인 행사로 민가는 물론이고 궁중에서까지 펼쳐지던 '나례희'와 '산대놀이'로부터 시작해 약공집단인 광대들의 '사당패 놀이'는 민중들의 애환을 풀어 주는 유일한 위안물이었다. 한때 영화 '왕의 남자'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이유 역시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정서 안에는 한마당 질편하게 어우러터우렁 하고 싶은 심사가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다. 무대라는 공간이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공연자 것이라면, 마당은 흥이 나면 언제든 뛰어 들어 함께할 수 있는 관람자 것이라고나 할까.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와 춤이 세계적인 불을 일으킨 것도 가수가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이 함께 어우러져 한바탕 신명을 풀어 낼 수 있도록 마당을 펼쳐낸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춤을 전혀 몰라도 그저 말처럼 뛰기만 하면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통쾌함이란!

여기저기서 '설 자리(마당)가 없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공부 잘하는 청소년만이, 근사한 직업을 가진 젊은이만이, 부유하고 건강한 노인만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다. 사회 곳곳에 뛰어난 주연들이 공연하는 무대는 난무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함께할 만한 마당을 만나기는 어렵다. 1인 가구 수가 40%에 육박하고 '고독사'나 '극단적 행위' 같은 말도 하루가 멀다 하게 들려오고 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며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던 그 옛날의 열린 마당이 새삼스럽다. 누군가 온다는 약속도 없는데 대문 빗장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도 정성을 다해 마당을 쓴다.

독자투고

여성대상 범죄 울타리 강화 필요

신체적 약자 중인 여성을 노리는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대상 범죄가 이상동기 범죄(문지마 범죄)처럼 목적·동기 없는 경향이 있다

최근 주민들 상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 근절해야 하는 범죄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노인 학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성범죄 신고건수가 매년 늘고 재범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범죄 건수와 재범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범죄 관련 사례 중 하나가 불법촬영 범죄이다. 카메라 등 혹은 유사기능을 갖춘 녹화 장치를 이용, 신체를 촬영한 것을 말한다.

적발시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성특법)불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신속한 현장 대응, 성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도보순찰로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경찰뿐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사후 관리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협력관계가 절실하다.

정병준 <전남경찰청 범죄예방계 기동순찰대 경사>

술·약물 먹고 운전은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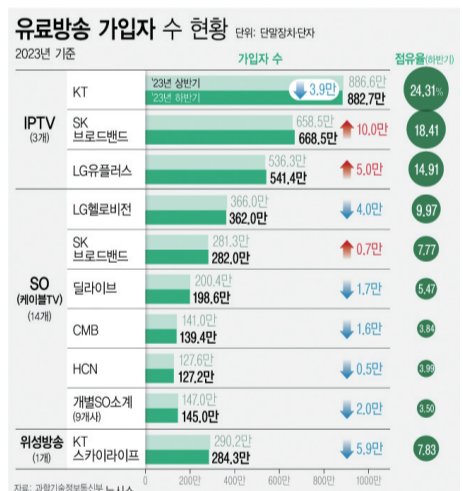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1일부터 7월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상습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차량까지 압수당한다.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13만 건에 음주사고는 약1만500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재범률도

40%대에 달한다. 술에 취하면 누구나 판단력이 떨어진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교통안전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만큼 절대해서는 안 되며 불구하고 "한잔 정도면 괜찮겠지, 나 지금 멀쩡한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는 강력한 무기로 변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는 잡아서 안 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과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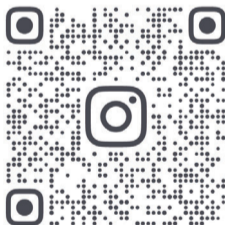
김창희 <순천경찰서 별파파출소 경감>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jnilbo
전남일보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jnilbo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